

‘추억 소환’ 음악다방에 어르신들 아련

●도계스님·(사)자비신행회 후원 행사

60-70년대 유명 가수 ‘배호’ 특집...월연스님 모창 등 무대 이지에 동구의원·총장동 통장단 봉사활동...자장면 대접도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가수 ‘배호’ 특집 음악다방 행사가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장동 자비신행회 나눔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사)자비신행회가 주관하고 소원정사 도계스님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도계스님, 월연스님, 효암스님, 류가림씨, 이지애 동구의회 의원, 이양섭 동구총장동 통장단 회장을 비롯한 회원 7명, 지역 어르신 70여명 등이 함께했으며, 총장동 통장단과 이지애 의원이 봉사자로 나섰다. ‘음악다방’은 (사)자비신행회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문화 행사 및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매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추억의 가수 ‘배호’로, 평소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발걸음을 했다. 나눔홀의 각 테이블에는 생화차, 생강차, 정성스레 준비된 다과가 놓여 마치 옛날 다방에 온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어르신들은 포스트잇에 좋아하는 노래를 적어 DJ에게 건네며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류가림씨가 DJ를 맡아 진행한 공연은 배호 모창가수 월연스님의 ‘돌아가는 삼각지’ 열창, 기타·아코디언 연주, 효암스님의 감미로운 노래, 류가림씨의 색소폰 연주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60-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배호’와 ‘남인수’의 명곡들이 연이어 나오자 어르신들은 함께 따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동명동에 거주하는 김양임(65·여)씨는 “매주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가수 ‘배호’를 주제로 한 행사가 있다고 해 와봤다”며 “맛있는 차와 간식을 즐기며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추억을 꺼낼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 뒤에는 어르신들의 허기를 달래 줄 자장면과 가래떡, 굴들이 제공됐다.

류가림씨는 “매월 추억의 음악다방 행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며 “색소폰 연주에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덩달아

웃음이 난다”고 말했다.

도계스님은 “어르신들이 10월 끝자락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가수 배호는 1980년대 가요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1983년 1집 앨범 ‘두메산골’로 정식 데뷔해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누가 울어’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켰으나 1971년 11월 7일 향년 29세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박현진 기자

서구, 오늘 ‘천원국시 7호점’ 문 연다

화정1동에... 60세 이상·건설노동자 등 1천원에 이용

광주 서구 화정1동에 ‘천원국시 7호점’이 들어선다.

31일 서구에 따르면 천원국시 7호점은 11월 1일 오전 11시 화운로 175번길 5-71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천원국시는 서구와 광주서구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나눔문화 확산, 우리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문을 열고 있다. 7호점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일일 판매량은 100그릇으로 일반인은 3천원에, 60세 이상과 임산부, 7세 미만은 1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지점과 달리 7호점은 건설 현장 종사자에게도 국수를 1천원에 판매한다. 이는 화정1동 주변에 건설 현장이 많은 특성이 반영됐다.

또한 마을 BI(Brand Identity)인 ‘함께 있다, 안전마을’과 연계해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과 ‘생각대로&마음대로 낙서판’을 설치해 ‘마을 소식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3월 양동 1호점을 시작으로 ▲풍암동 2호점 ▲화정1

동 3호점 ▲상무1동 4호점 ▲농성2동 5호점 ▲금호1동 6호점을 개소했다.

지난 9월까지 각 호점별 누적 방문객은 양동 1만5천555명, 풍암동 2만1천45명, 화정1동 2만4천24명, 상무1동 1만4

천300명, 농성2동 1만191명, 금호1동 6천400명 등 총 12만9천65명이다.

김명숙 서구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나눔 가치를 확산하는 천원국시가 ‘함께 서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따뜻한 국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서로 어우러져 가는 공간을 목표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숲속의 가을 음악회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광주 남구 사직공원에서 열린 ‘숲속의 가을 음악회’의 출연진들이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6:54 해질 17:38
🌙 달돋이 06:28 달질 17:16

인cheon	14/19	Seoul	12/20	Chuncheon	10/18	Gangneung	13/21
Jeonju	13/19	Daejeon	12/19	Dokdo	14/18	Gwangju	14/18
Mokpo	15/18	Gwangju	14/18	Busan	17/20	Jeju	16/17
Hokkaido	15/18	Jeju	19/21	Jeju	16/17		

광주	구름비	14/18
목포	구름비	15/18
여수	구름비	16/17
나주	구름비	14/16
완도	구름비	16/19
구례	구름비	13/18
강진	구름비	16/18
해남	구름비	16/18
장성	구름비	13/17
보성	구름비	14/16
순천	구름비	15/17
영광	구름비	13/18
진도	구름비	15/18
흑산도	구름비	15/18
고흥	구름비	15/19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40 🧺 빨래 30 🚗 세차 20 🏃 운동 30
우산 챙기세요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실내운동 즐겨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0.5-1.5
남해 앞바다	1.0-2.0	1.0-2.0
동해 앞바다	1.0-2.0	1.0-2.0
남해 앞바다(동)	2.0-4.0	2.0-4.0
남해 앞바다(서)	1.5-3.5	1.5-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1:45	07:04
	14:18	19:31
여수	08:56	02:23
	20:53	14:55
녹동	09:39	03:22
	21:33	15:59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1월 2일(토)	☁(16/22)	☀(14/22)	☁(14/18)	☁(15/20)	☁(20/21)
3일(일)	☁(13/21)	☀(12/21)	☁(12/19)	☁(12/20)	☁(18/21)
4일(월)	☁(13/16)	☁(9/12)	☁(14/17)	☀(10/16)	☁(16/20)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청소년 꿈·끼 펼쳐라”...‘호프 클래스’ 운영

시교육청, 일곡중서 개소식...내년 실내 공연장 등도 조성

광주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호프 클래스’가 문을 열었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곡중학교에서 복합 커뮤니티 교실 ‘호프 클래스(Hope Class)’ 개소식을 가졌다.

호프 클래스는 지역 청소년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창체교실(창의적 체험활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광주 북구가 ‘일곡중학교 희망이음터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 ‘2024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총 35억원을 확보, 호프 클래스는 물론 일곡중학교 일대에 교육·돌봄, 문

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5억원이 투입된 호프 클래스는 기존 일곡중학교의 유휴 교실을 ▲다용도 시청각교육이 가능한 미디어월 ▲졸업생들의 확장 시절을 담은 디지털역사관 ▲조식 카페 및 휴게공간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운영한다.

북구는 19억원을 들여 ‘희망의 거리’(호프 스트리트·Hope Street)와 나눔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교육청은 내년에 일곡중학교 일대에 11억원을 투입해 마을온실, 맨발 산책로, 실내 공연장 등을 꾸린다. /김다이어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맑은물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목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목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곡성군

문의 : 062)650-2099